

# 光圳日聚

₹ FELICE 승원 팰리체 **☆ 등원건설그룹**

수학・영어・정보과목 등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부, 2025년부터 순차 도입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2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1일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힘 받나

정부, 유망 반도체 기술 선제 확보 1조 4000억원 규모 예타 추진 尹, AI와 반도체 산업 접목 언급 광주 반도체 정책 긍정 영향 전망

정부가 첨단 패키징, PIM(지능형 반도체· 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등 '파괴 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시 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단지)' 유치 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9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의 접목까지 직접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인 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영빈 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 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군사 분야에 AI 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 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반도체 정책 방향 보고를 통해 초 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PIM 연 구개발(2022~2028년, 4000억원)과 차세대 지 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96억원) 외 에도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 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 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패키징'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월 국 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위한 전략 기술로 지정하기도 한 기술로, 비메모리 반도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 공정 중 하나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30%)와 비메모리반도 체(70%)로 나뉘는데, 비메모리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공정, 후공정(패키징) 등 3 단계로 완성품이 제작된다. 정부는 후공정인 '패 키징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 야에서 세계 1위를 굳히고 있는 반면 글로벌 반도 체 패권경쟁의 핵심인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난 2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유치

를 위한 전략기술로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 키징(Advanced PKG)'을 선정하고 신청서와 육 성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

광주시는 첨단 1지구와 3지구 일대 글로벌 반도 체 패키징 세계 2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와 함 께 케이(K)-반도체 핵심 요충지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패키징과 함께 육성하기로 한 전력 반도체는 신속한 전력 변환과 제어에 특화된 반도 체로 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 시스템, 태양광 발전 인버터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기차, 산업 자동 화 등에 쓰이고 있으며 전동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역시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공급망 병목 현상 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소부장(소재・ 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하고, 소부장 국 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 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 센터' (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 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점

차 확대 도입돼 2028년까지 도덕,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 쓰인다.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디지털교과서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 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AI 디지털교 과서를 활용하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 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성취도 분석 결과 성취도가 낮은 '느린 학습자'에게는 학생별로 기본개념을 다질 수 있는 기초학습 과제를 추천해주고, 성취 도가 높은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 용에 맞춰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 년, 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

과목별로는 2025년엔 수학, 영어, 정보, 2026년 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도입된다.

활동 중심으로 이뤄지는 음악, 미술, 체육과 인 성 함양을 위해 대면 교육이 중요한 도덕, 고교 선 택과목을 제외하면 전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셈이다.

시골 정취 … 전남서 '촌캉스' 어때요?

왜곡 판쳐도 처벌 못하는 5·18왜곡방지법

북스-'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14·15면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日오염수 청문회 연다

위원장, 선관위 국험·오염수 민주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 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 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을 보여 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 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 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 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 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 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 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 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 가 동 시점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